

## 건강한 지구 ... 우리 과학자들이 지켜야

연금술이 시작된 이후로 발달한 화학공업을 통하여 인류는 많은 일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화학공업의 발달사를 눈여겨 보면 그것이 인류의 문명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정분야의 흥망성쇠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위에서 각광받는 분야나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 문명의 목표와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것은 바로 환경관련분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산업활동들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느냐, 병들어 버린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목표가 맞추어진 듯하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생필품의 대부분이 일회용으로 대체되는 듯 했고 그것이 시대의 조류 또는 최종목표로조차 인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으며, 국내에서도 90년대 초를 장식한 낙동강의 폐놀사건이나, 수돗물의 THM 검출 사건 등이 과거에도 분명 있었던 사건임에 불구하고 그렇게 큰 화제로 떠올랐던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몸으로 직접 환경문제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운동, 예를 들어 캠페인 차원의 쓰레기 수거운동, 또 연초에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등은 참여하는 인원수나 규모면에서 따져보면 그리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우리들, 과학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더 크게 있는 듯 하다.

가까운 예를보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치명적인 환경오염물질이 과연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신있는 대답을 하거나 들을 수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또 공단 근처의 도로를 지날때면 나는 그 냄새

가 정말 냄새만 이상한 것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런 물음이나 궁금증에 대해 우리들은 떳떳한 입장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더욱더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 오염원들의 배출자이며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화학회에서 내건 '화학이 지구를 더 푸르게'라는 슬로건은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그 오염원인들의 책임자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배출에 대한 책임과 해결에 대한 의무를 완벽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실험 폐액을 최대한 줄여 다른 오염원에 비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오염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오·폐수 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염원의 분석이나 검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오염물질 자체를 제거하거나 해롭지 않은 물질로 전환하는 연구가 보다더 활발히 진행되어 좀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구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도 또한 병들게 한 책임도 우리들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말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석 준

(연세대학원 화학과 박사과정)